

외교 빅이벤트 소화하며 3대지수 상승, 이란 변수 여전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국채금리 부담에도 기술주, 중동 상황 개선 기대에 상승

- 미 증시는 DOW +0.93%, S&P500 +0.51%, NASDAQ +0.48% 상승. 한국 추석 연휴기간 미 증시 누적(23-25 일) DOW -0.07%, S&P500 -0.27%, NASDAQ -0.64% 하락
- 국채금리 혼조 10Y 5.180%(+1.6bp) 2Y 4.864%(-3.1bp). 8월 비국방 자본재수주 MoM +1.6%(전월·컨센 상회)등 경제지표 호조로 금리 인상 우려 자극, 다만 우려되던 미 정부의 경유 수출금지 조치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 중동 상황 개선 기대 등에 의해 상승폭 다소 축소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4%. SK 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인텔로부터 인수한 NAND·SSD 사업부)이 이르면 내년 미 증시 상장 관측되며 반도체 투심 훈풍

미중 정상회담,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차 여전

- 23~25일 시진핑주석 방미 및 미중 정상회담. 각국 공식 발표에서 공동적으로 확인된 합의 내용은 무역분야 \$300억 규모의 상호관세 인하 및 무역·투자위원회 가동, AI분야 대화 채널 구축 및 11월까지 후속 대화 등
- 다만 회토류, 대만 등 핵심 쟁점사안은 논의선상에 있었음에도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랐거나 언급되지 않음. AI도 구체적 합의 성과 도출은 부재했으며 대이란 정책 역시 시 주석의 동의 표시 외에 구체적인 중국의 대이란 조치는 부재
- 폴리티코는 무역분야에서의 실질적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며, 양측 합의문의 차이는 여전히 핵심 무역갈등 사안에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 향후 11월 APEC 정상회의, 12월 G20 정상회의 등에서 미해결 의제 논의 전망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위한 7일안 제시, 트럼프는 거절

- 국제유가 하락 WTI \$92.4(-2.3%), Brent \$97.4(-2.0%). 이란이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로드맵 제시. 6월 MOU 당시 포함된 단계적 전쟁 종식을 위한 항로 재개방과 경제 제재 해제, 핵 협상 재개 등 대부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이란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거부 의사 공식화. 중재국을 통한 간접협상은 지속하나 대이란 해상봉쇄 및 경제 제재 지속 전망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MSFT	마이크로소프트	+3.7%	AI 에이전트·오피스 기능 결합한 코파일럿 '슈퍼앱' 공개에 주가 상승. 코파일럿 앱 내 워드·엑셀·파워포인트 실시간 생성 기능과 자율 업무수행형 에이전트 'Autopilot' 탑재. 에이전트 상품 과금은 사용자당 방식에서 사용량 기반 병행 방식으로 전환
AKAM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3.2%	엔트로픽과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체결에 주가 상승. 향후 7년간 \$11.6B 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체결. 컴퓨팅 수요 증가 시 \$9B 추가 확대 옵션 포함. 엔트로픽에 보통주 770만 주(발행주식의 5%)를 주당 \$111.33에 행사 가능한 워런트 발행
AAPL	애플	+1.5%	장 마감 후, '21년 택션테크놀로지가 제기한 헵틱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 \$5.7B 배상 판결 소식 보도. 샌디에이고 연방 배심원단은 아이폰·애플워치 탭틱엔진이 택션테크놀로지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음. 애플은 침해 판단과 배상액에 불복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판결은 역대 미국 최대 규모 특허 배상액에 해당
BE	블룸에너지	+8.3%	오라클(-1.8%)이 프로젝트 주피터 데이터센터 지연에 대비해 불가항력 통지를 발송하며 전일 동사 주가 하락했으나, 양사는 2.4GW 규모 연료전지 계약 유지 입장 표명하며 우려 완화. 모건스탠리는 해당 프로젝트가 '26 회계연도 가이던스에 미포함돼 있다며 '비중확대' 의견과 목표주가 \$310 유지
GENI	지니어스 스포츠	+11.0%	JP모건이 '비중확대' 의견과 목표주가 \$8로 커버리지 개시하며 주가 상승. 목표주가는 9/24 증가 대비 38% 상승여력